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예비학교 운영

전주형 공동체, 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디딤·이음·희망 3단계로 연차별 지원

전주시는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온두레 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6일 예비학교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5일간 온두레 공동체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이웃과 함께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전주시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공동체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주시는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온두레 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6일 예비학교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5일간 온두레 공동체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이웃과 함께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예비학교에 참여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업지원서를 접수, 심사를 통해 디딤단계(1년차)와 이음단계(2년차), 희망단계(3년차) 등 3단계로 나뉘어 연차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디딤단계에 참여한 100여개 공동체 중 경쟁력을 갖춰 성장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는 이음단계로, 이음단계에 참여한 12개 공동체 중 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동체를 희망단계로 각각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동체 사업의 최종 단계인 희망단계에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전주시 사회적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비학교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별 맞춤형 사업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업 접수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예비학교 입교를 신청한 1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입교식에서 시는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단체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그동안 활동해온 다양한 공동체 모습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시는 예비학교 운영 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온두레 공동체 본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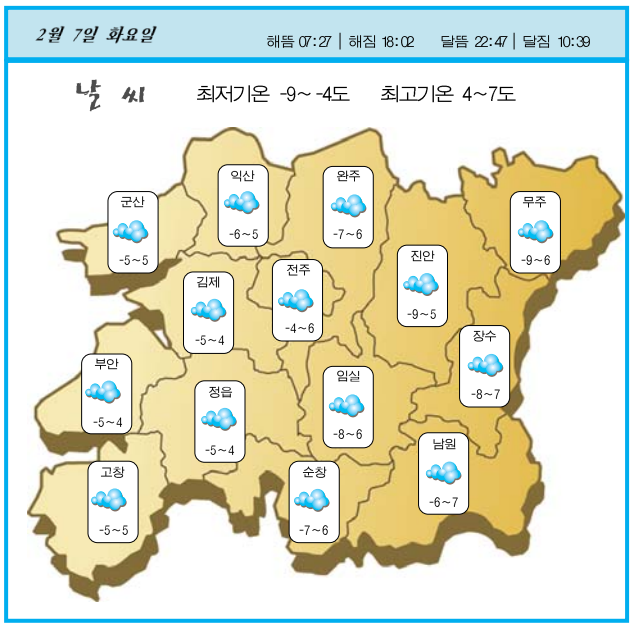
신청서 접수는 시청 공동체육성과를 직접 방문·접수하면 되며, 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60여개의 지원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은 단계별·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박경희 전주시 공동체육성과장은 "공동체 육성은 사람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시정 방향의 근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도 내실 있는 공동체의 발굴·육성을 통해 배려와 포용의 공동체 가치를 곳곳에 퍼뜨려 사람이 살기 좋은 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온두레 공동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7개의 공동체를 육성하는 등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에 집중, 이 중 4개 공동체는 협동조합을 창립하면서 자립적 공동체 환경을 조성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CK-1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

학생 해외 파견 지원 '호응'

전북대학교 CK-1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이 방학 중 학생들을 해외 대학에 파견해 전공 교육뿐 아니라 그 나라와 지역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은 최근 전자공학부 학생 11명을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인 CK-GLP(CK-Global leadership program)를 통해 중국 강소대학교에 파견, 1주일동안 기계전자공학시스템 과목을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은 아두니오 기본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Infared sensor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벽 회피 스마트카 설계, 스마트카 미로 탈출 원리 파악 및 실험 등 기초부터 응용 및 실습까지 단계별로 수업을 받았다.

이 교과 과정 수료를 통해 2학점도 취득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위주의 교과 과정이 아닌 학부생의 눈높이에 맞춰 아두이노를 접목한 모터 구동과 제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덕주 학생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강소대학에 머무르는 동안 나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은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미네소타대학, 텍사스 주립대학, 일본 나가사키 대학 등에 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 산업대학과의 MOU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정해은기자

전북도교육청, 도내 94개 일반고 역량강화 37억원 지원

학교 학급 규모 따라 100만원~120만원씩 지원 직업교육·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일반고 역량강화에 총 37억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94개 일반고에 총 3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학교 학급 규모에 따라 100만원~120만원씩 지원해 직업교육 지원,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지원하는데 총 예산은 20억원이다.

또 물리, 화학, 국제정치 등 선택 학생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 인근 학교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묶은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14개교로 운영하는데 내달 희망자를 모집해 연합형, 개방형, 강화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과목을 집중 이수할 수 있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인 '진로집중과정'도 20개 학교 내외로 운영한다.

문과분화과정(인문 사회 국제 경상), 이과분화과정(자연과학, 생명의약보건, 공학), 예술분화과정(음악, 미술디자인, 연극영화 등), 체육분화과정, 외국어과정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학교 선택 프로그램도 마련했는데 △인문학강좌 △토론교육 △수학 인성 프로그램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창의적체험활동 자율동아리 △학교자율 프로그램 등 중 학교별로 1~2개 가량을 선택, 운영하는데 총 5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일반고 학생들이 지역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해 기본적인 실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 가는 연구실'과 '전북 이공계 청소년 학술제'가 진행된다.

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강좌도 운영된다. 4월부터 7월까지 보건, 미용, 요리 등 8개 강좌, 1백60명 학생을 전주기전대, 원광보건 등 도내 전문대학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내달 3일까지 도내 학교시설 안전 점검

전북도교육청은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에 들어간다.

3일 도교육청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건물과 축대, 옹벽등 안전취약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 점검 대상과 자체 점검 대상 시설물을 구분해 추진한다. 민관 합동 점검 대상 시설물은 C~E 등급과 해빙기 축대, 옹벽 등 재해 취약시설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안전 점검은 지반침하로 인해 생길 붕괴 위험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찾아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보수가 필요할 경우 출입통제 등을 통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